

한 · 중 · 일 정상회담(12.5.13) 주요내용

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회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개국에 의한 FTA협상을 연내에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,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는데 제후기로 합의하였음

□ 제5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

- ‘제5회 한중일 정상회담’에서 한중일FTA체결을 위한 교섭을 연내에 개시하고,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제후에 합의
 -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,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가 일본에서는 노다 총리가 참석
 -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, 북한의 핵 도발행위를 저지하는데 합의하고, 한중일 3개국에 의한 FTA협상을 연내 시작하기로 합의
 - 그밖에 3국 정상들은 △금융, △에너지, △환경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음
- * 제6회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개최예정

〈한 · 중 · 일 정상회담 주요 포인트〉

1. 한중일 3개국 FTA교섭 연내 개시
2. 핵실험 등 북한에 의한 도발행위 저지 연계 강화
3. 한중일 3개국 투자협정 서명
4.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나 여행제한 완화를 요청

□ 주요합의 내용

- ‘한중일 투자보호협정’을 13일 체결하였으며, 3개국 정상은 이번 합의로 향후 경제교류, 무역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
 -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·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대국 진출기업의 보호와 투자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, 투자규제 강화 금지 조항 등이 이번 협정에 포함됨에 따라 중국 진출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 - △투자유치국 법령에 따른 투자 허용, △투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보장, △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, △국유화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공정·신속·합리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
- 한중일FTA는 연내에 교섭이 개시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 등 준비 작업에 착수기로 하였음
 - 이명박 대통령은 “한중일 3국은 북미, EU과 함께 경제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”면서 “우수한 노동력과 첨단기술, 풍부한 자본은 세계 경제의 활력소이자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”고 평가
 -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“FTA가 체결이 되면 3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,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에 대한 강한 원동력이 될 것”이라고 표명하면서,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 확대를 환영
 -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, “한중일FTA는 경제분야에서 첫 번째 법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설명하고 “경제적 의의뿐만 아니라 3개국 간의 관계강화라는 정치적 의의가 크다”고 강조

- 그밖에 3국 정상은 석유 가격급등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확인하였으며, 향후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
- 기타 △원자력 안정이나 지진분야 등의 공동연구, △해적대책이나 에너지 안전보장, 테러 대책 등의 협력 촉진, △바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색 구조에 관한 협력 강화, △동아시아경제 통합을 위한 논의 지속 등에 합의
- 14일 발표된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응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하였으나,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문제는 명기하지 않았음
- 일본정부 대표관계자에 의하면, 북한 대응에 강하게 주장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, 중국은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싶으면서 문안 조정과정에서 난항이 있었다고 전언

□ 성과

-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해 폭 넓고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물론이고 △3개국 FTA협상 연내 개시, △한중일 투자협정 법적·제도 구축을 위한 협의 개시 등,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
- 또 공동선언에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, 향후 3개국이 연계를 강화하여, 핵실험 저지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데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임